

시끌벅적 e-스타



뻘하지만 재미있는 '한국 드라마의 법칙 7'

알고 보니 남매, 걸렸다 하면 불치병... 드라마속 뻘한 공식, 그래도 재미있는 한국 드라마의 세계를 담은 '한국 드라마의 법칙 7'이라는 동영상이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 드라마 한 번 살펴보니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주인공의 출생의 비밀이란다. 고아로 자랐는데 부자인 부모가 있고, 남여 주인공 알고 보면 남매이거나 남매인 줄 알았는데 남이다. 또 하나 식상한 소재 '바람'. 남자 주인공 홀로 바람을 피던 전형적인 '바람' 소재가 '단체 바람'으로 조금 바뀌기는 했다. 특이한 죽어버리는 여주인공도 흔한 캐릭터다. 아프다 하면 불치병이고, 꼭 착하고 고생한 사람만 병에 걸린다. 어찌됐든 여주인공은 병에 걸려도 예쁘다. 드라마가 수학 수업도 아니지만 도형 관계 꼭 나온다. 삼각, 사각 심지어는 오각까지. 드라마 주인공들의 이상 취향은 어쩔 그리 똑같은지 연애 전선은 이리저리 엮히고 설킨다. 돌씩 짝하라고 4명을 주인공으로 맞춰 놓아도 그 4명끼리도 갈광질판이다. 못한 주인공들의 변신도 자주 등장하지만 그리 놀랄일은 아니다. 돈해 보이는 안경을 쓰고 머리방망한 머리를 하고 있어도 원래 예쁜 배우들이다. 마지막으로 신데렐라 스토리가 있다. 이 스토리가 성립하기 위해선 재벌 2세 남주인공과 평범하지만 밝고 당찬 여주인공이 있어야 한다. 죽어라 결혼 반대하는 부모님의 등장도 필수다. 여주인공을 괴롭히는 악녀는 덤이다. 식상하다면 식상하고 독특하다면 독특한 한국 드라마의 법칙, 하지만 동영상의 결론은 이거다. '한국 드라마 재미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오늘의 유머

▲술 세 잔 남자가 술집에 들어와 술 세잔을 시켰다. 그리고는 술잔을 번갈아가며 마시는 것이다. 주인이 의아해 하며 물었다. "손님, 한번에 한잔씩 마시지 않고 왜 번갈아가며 마시니까?" "저는 삼형제인데 서로 멀리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함께 술을 마시던 추억을 기억하며 나머지 사람 것도 함께 마시자고 약속 해서 두 형님과 마시는 기분으로 이렇게 마신답니다."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단골이 된 남자는 그 술집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날 어느때와 마찬가지로 나타난 남자가 술을 두 잔만 시키는 것이다. 순간 가게 안은 고요해지고 사람들의 시선이 남자에게 쏠렸다. 주인은 형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며 물었다. "형님일은 참 안되셨습니다. 어찌다가..." 그러자 남자는 두 번째 잔을 흘쩍이며 답했다. "제가 술을 끊어서, 형님을 뒀만 마시고 있습니다." ▲거짓말 어린 아들이 자주 거짓말을 하자 엄마가 아이를 불러 혼을 냈다. "거짓말을 하면 뿔이 달린 사람이 밤에 와서 잡아가. 그리고 동굴 속에 가둬 놓고 힘든 일을 시키는데, 그래도 너 거짓말 계속 할거야?" 그러자 아들이 대답했다. "에이, 엄마는 나보다 거짓말을 더 잘하네 뉘." ▲용감한 병사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전장에서 지휘관이 전 병사를 집합시키고 엄한 목소리로 외쳤다. "제군들! 제군들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믿는다. 지금 막 들어온 보고에 따르면 아군 인원이 1천 명 그리고 적군이 1천 명이다. 그러니까 각자 적군을 한 명씩만 처치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알겠나!" 장군의 얘기를 듣고 패기 넘치는 병사가 큰 소리로 외쳤다. "장군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 두 명을 해치 우겠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병사가 조용히 말했다. "장군님! 그럼 전 집에 가도 됩니까?" ▲엄마의 교육 엄마가 다섯 살 난 아들을 가르치기 위해 한 아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떤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저녁마다 잠자리 들기 전에 스스로 씻고, 장난감도 가지런히 정돈한다..." 그러자 얘기를 다 듣고 난 아들이 엄마를 뺨해 쳐다보며 물었다. "엄마, 그 애는 엄마도 없애?" ▲속제 검사 선생님이 속제 검사를 하고 있었다. "속제 안 해온 사람은 자진 신고해." 그러자 한 아이가 머리를 긁적이며 앞으로 나왔다. "이 녀석, 왜 속제를 안했어?" "어제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못했었요." 선생님은 기특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아, 엄마 간혹해 드리라고 속제를 못했구나?" 그러자 아이가 대답했다. "아이요, 엄마가 편찮으시기 전에는 엄마가 늘 속제를 해 주셨거든요." ▲변명 기숙사에서 세 명의 학생이 내기 고스톱을 치다가 사감에게 발각됐다. 이들의 종교는 각각 달랐는데 한 명의 가톨릭, 한명은 불교, 나머지 한 명은 무교였다. 징계회의에 나가 학생이 말했다. "성모 마리아에 맹세코 내기 고스톱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한 명도 대답했다. "부처님께 맹세코 고스톱을 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학생이 대답했다. "저 혼자서는 고스톱을 칠 수가 없습니다."

리빙 센스

운동할 때 필요한 자세 ③

- 1. 가벼운 신축도 운동이다. 하루에 30분 정도만 중간 정도 강도의 운동을 해도 건강이 좋다. 운동할 시간이 없다면 간단한 산책을 하는 것도 운동이 된다.
2. 반복운동이 효과적이다. 적당한 강도로 운동을 반복하는 것이 운동을 오래 지속시키고 효과를 높이는 좋은 방법이다.
3. 운동은 새벽에 하자. 운동의 효과 측면에서 보면 공복상태인 새벽에 하는 운동이 가장 좋다. 새벽에 운동하면 피하와 간에 축적되어 있는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어 체내의 지방량을 줄일 수 있다. 특히 다른 질환이 없는데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지방간이 있거나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들에게 새벽 운동은 매우 효과적이다. 그러나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식후에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6월 26일(음 5월 23일 丁酉)

Table with 12 rows representing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their corresponding horoscopes for the date June 26th.

Go board game diagram titled '제17회 光日盃' (17th Kwangnildae Cup). It shows a board with numbered stones and a small inset diagram labeled '참고도' (reference diagram).

Go board game analysis titled '최절한 삼지뜨기' (The most perfect three-stone capture). It discusses a specific board position and provides commentary on the game strategy.

Baduk (Go) news titled '바둑소식' (Baduk News). It reports on a match between GS칼텍스배 선두 (GS Kalteks Leader) and another player, mentioning a 9-stone capture.

Advertisement for '더마플라스트 밴드' (DermaPlast Band) featuring a photo of a family and text describing the product's benefits for skin care.

Language learning section for '굿모닝 잉글리쉬 <1190>' with the topic 'How did the interview go?'. It includes a dialogue between A and B and a Korean translation.

Language learning section for '오하오우 니혼고 <1190>' with the topic 'あらかじめ買(か)っておくつもりです'. It includes a dialogue between A and B and a Korean translation.

Language learning section for '니하오 쑹구위 <167>' with the topic '二老師不在'. It includes a dialogue between A and B and a Korean translation.

Language learning section for '한자 이야기 <807>' with the topic '王兄佛兄(왕형불형)'. It includes a story about a man named Wang and his relationship with a monk.